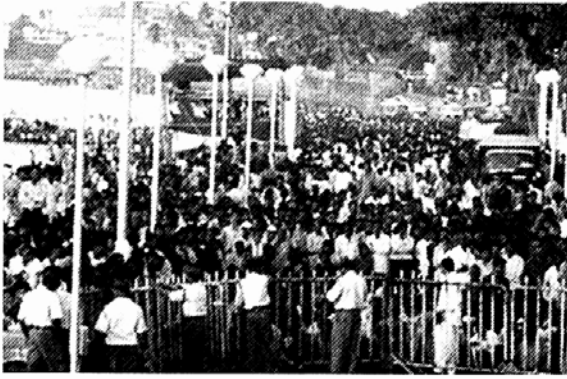


참배인파 30만 '불교혁명' 발원

인도 암베드카르 박사 45주기 추모법회

인도의 불자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 집결지는 인도 제1의 도시이며 불자 정치인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기도 한 마하슈트라주 뭄바이(Mumbai). 12월 6일은 인도 불자축천인의 아버지이며 이들을 불법의 길로 이끈 암베드카르 박사가 열반에 든 날로서, 인도의 불자들에게는 의미 깊은 날이다. 이날 암베드카르 열반 45주기 추모행사가 거행된 짜이피아부미(Chaitya Bhumi: 사원의 땅)가 있는 뭄바이의 다다르(Dadar) 지역은 곳곳에 장엄된 불상과 암베드카르의 초상화를 마련해 놓은 거리의 법석, 수많은 인파와 불교기를 내건 행사차량들로 축제 분위기를 이루고 있었다.



◇인도 뭄바이시 짜이피아부미에서 4일부터 6일까지 열린 암베드카르 박사 45주기추모식에 참석하기 위해 인산인해를 이룬 불자들.



이지은 통신원
인도 델리대학원 사학과 박사과정

불상·초상화 거리 장엄 각주 대표 포교활동 보고 힌두교 탄압행위 우려도

짜이피아부미는 1956년 암베드카르 박사의 다비식이 거행된 장소로, 이후 다비식을 기념하기 위하여 자그마한 법당을 짓고 남방 불교에서 사원을 의미하는 '짜이피아'라는 이름을 붙였다. 당시 암베드카르 박사가 숨을 거둔 곳은 델리의 자택으로, 그의 책상 위에는 이미 완성되어 출판 준비중이던 '붓다와 그의 법(The Buddha and His Dhamma)' 원고가 펼쳐진 채였다. 박사의 시신은 뭄바이에 있는 그의 본가(本家), 라자그라하(Rajagraha: 왕사성)로 옮겨졌고, 다음 날인 7일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박사의 서거 소식을 듣고 각지에서 하층민들 50만명이 운집하여 3km가 넘는 행렬을 만들며 운구에 동참하였다.

박사의 열반 이후 매년 기념되었던 기일은 올해도 변함없이 지켜져서 많은 불자들이 불법을 인도 땅에 다시 펼친 그의 뜻을 기렸다. 4일부터 짜이피아부미에서도 도로 10분 거리에 있는 쉬바지(Shivaji) 공원에는 천막이 쳐지고 각지에서 불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5일 자정이 지나자 추모법회를 시작으로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다. 추모법회에는 주로 마하라슈트라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스님들과 이 지역 불자 약 20만명이 참가하여 삼귀의례를 시작으로 부처님전에 암베드카르 박

사의 명복을 빌었다.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이 곳을 참배한 인원은 해도 30만을 넘어선다. 법당 안팎에는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되어 쉬바지 공원에 가설된 대형 스크린과 TV 수상기를 통해 신도들의 참배모습을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저녁 6시경부터는 짜이피아부미 앞의 공터에 자리를 마련하여 암베드카르 박사가 살아생전에 창립한 인도 불교협회(Buddhist Society of India) 주최로 추모집회가 열렸다. 추모집회에는 인도 불교협회 회장이며 암베드카르 박사의 며느리이기도 한 미라타이 암베드카르(Miratai Ambedkar)여사와, 불교당장인 공화당 국회의원이며 박사의 손자인 프라카쉬 암베드카르(Prakash Ambedkar)씨를 비롯, 인도 불교협회에서 승가를

대표하고 있는 상기 샤샤크(Shangi Shashak)스님, 상가팔(Shangapal)스님, 인도 불교협회의 임원들과 각 지역대표 등이 참석했다. 매년 행사에 참석해 오던 암베드카르 박사의 미망인은 아흔의 나이로, 현재 와병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귀의와 간단한 예불로 시작된 모임은 회장이 미라타이 암베드카르 여사의 개회사로 이어졌다. 상기 샤샤크 스님은 법어를 통해 암베드카르 박사의 유지를 이어받아 '불법을 통한 혁명'을 이룩하자고 역설하며, 부처님께서 '대중에 의한 정치'를 열망하셨는지 부처님 당대의 공화정 체제를 예로 들며 설명했다. 각 주 대표

자들은 각 지역에서의 포교 활동과 불교도 권리 신장운동의 진행 상황과 문제점을 보고하였으며, 특히 까르나타카 주 대표는 미라타이 암베드카르 회장에게 불교 포교 기금으로 써 달라며 지역에서 모금한 금일봉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많은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선 프라카쉬 암베드카르씨는 힌두 원리주의의 정당과 단체들의 횡포와 소수종교탄압을 비난하며, 지난 11월 초 델리에서 있었던 개종식 행사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조직적인 방해공작과 아직도 시골 마을에서 심심치 않게 되풀이되고 있는 하층민들에 대한 폭력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 불자들의 뜨거운 불심을 하나로 묶어낼 만한 제2의 암베드카르 박사 출현을 기대해 본다.

北동포 돕기...생태교육...기아퇴치... 행복한 세상 만들기 '성큼'

정토회 3천일결사 회향

우리 사회에서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북한식량난 실태조사 및 북한 동포 돕기운동, 생태교육, 생명운동 아카데미 등의 환경활동과 인도 등 제 3세계 기아, 질병, 문맹퇴치운동을 수행의 과제로 삼아 정진해온 결사가 3천일을 맞았다. '일과 수행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불교계의 대표적 NGO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스님) 회원들이 결사의 주인공들이다.

정토회는 9일 문경정토수련원에서 정토행사 만일(30년)결사 중 제 3차 천일결사 회향식을 가졌다. 나로부터 출발해 나에게는 돌아오는 수행정진

을 생활의 근본으로 하여, 사람과 모든 생명이 어우러진 평화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려는 정토행자들이 모여 세번째 1천일 결사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정토회는 회향식에 앞서 7~8일, 문경 정토수련원에서 보다 집중적으로 각자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1박 2일간의 3천 배 정진을 함께 했다.

이번 회향식에서 정토행자들은 "정토세상 만들기를 위한 1만일결사는 불교가 인류문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보자는 목표 아래 정토의 기초를 다지는 기간으로 우선 만일(30년)을 짚은 것 일 뿐, 정토를 만들기 위한 서원은 세계생생 계속될 것"이라



◇정토회 산하 좋은벗들은 5일 정기총회를 열고 조선족 취업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 난민지원을 위한 국제연대사업 등 신년도 주요 사업을 확정했다.

고 강조했다. 개인적인 수행과 함께 사회적 실천을 돌로 보지 않는 정토회는 사회활동을 담당하는 상설 단체인 (사)좋은벗들, (사)한국불교환경교육원, (사)한국제이티에스를 설립 북한동포 돕기, 환경운동, 제3세계 지원 등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왔다. 또한 임시 기구로 99년부터 쓰레기 제로운동을 시작한 환경특별위원회, 지난해 3월 1일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위해 24시간 1000일 정진을 시작한 통일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환경 및 통일운동을 강화해 왔다. 이와 함께 정토불교대학, 정토수련원의 수련프로그램들은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얻어내는 아집과 감정,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김재경·강유신 기자

병원·교도소 '봉사 마당발'

대통령 포장 천재숙, 장관상 엄춘희·조용선씨

5일 한국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IVV2001한국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001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세계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대통령 포장을 받은 천재숙(56)씨와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엄춘희(63, 간병인협회 회장), 조용선(65, 구룡연지 회장)씨의 열골은 마치 보살처럼 환했다.



◇왼쪽부터 엄춘희, 조용선, 천재숙씨.

편을 보면서 병든 사람을 돕기 위해 서원한 엄춘희씨는 한국보훈병원, 시립아동병원 등에서 상담과 발원 기도는 물론 식사보조, 목욕 및 운동시키기 등 간병인으로 활동했다.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무료장례 봉사팀인 구룡연지 회장인 조용선씨는 10여 년 넘게 무의탁 노인과 장애인들의 뒤안길을 뒷바라지 하고있다. 이외에도 엄봄, 엄송, 무로강좌를 매일 실시하고 있고, 98년부터는 간병인 교육을 이수, 국립의료원에서 간병인으로 무료봉사하고 있다. 오종욱 기자

천천클럽 후원의 밤

종교를 초월한 자비실천 모임인 '천천클럽'의 후원의밤 행사가 5일 전주 대우웨딩홀에서 거행됐다.

이날 '전주 우리는선우' 오종근 회장은 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후원 및 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법인을 설립, 보다 조직적으로 활동을 전개하겠

다'고 말했다.

천천클럽은 전주시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16가구에 매일 생활비나 쌀을 보내고, 매월 두 차례 소년원 및 고아원 방문, 전북불교회관 경로식당 무료급식봉사, 명절 때 10여 가구에 떡과 쌀을 전달해 왔으며 퇴원비를 지원해왔다. 후원=(011)652-8892, 농협 658-02-011364(오종근) 조기식 전북지사장

베트남 관음사 후원회 결성

대구서 기금마련활동

베트남에 개원한 최초의 한국사찰 관음사(주지 정인)를 후원하기 위한 모임이 대구를 중심으로 결성되어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불교 베트남 포교원 후원회는 13일 대구 후원회 사무실에서 바자회를 열고 포교용품, 불교서적, 현지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 경비 등의 기금마련에 나선다.

이날 바자회에서는 대덕스님들의

서화, 각종 조각품, 불교용품, 다기와 대구 등 다양한 물품이 판매되며 바자회 수익금 일체는 베트남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경비로 사용된다.

지난 7월 개원 법회를 가진 이후 최근 부산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이 정각스님을 조실로 추대한 관음사는 현지인들과 교민들을 위한 포교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현지 교민의 어려운 생활, 종교 탄압 등으로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054963-1474 천미희 기자

천성산 살리기 운동

산내암자 주지 30명 동참

천성산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아내기 위한 내원사와 환경단체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천성산 산내암자 주지 스님들이 힘을 보태고 나섰다.

3일 내원사 법당에 모인 천성산 산내암자의 주지 30명은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으로 아끼되는 수행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일천만 불자의 성지이며 생태계의 보고인 천성산을 파괴하는 고속철도 관통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조계암, 미타암, 원효암 등의 스님들은 성명서를 통해 △고속철도 노선 전면재고 △천성산에 대한 지질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내역 공개 △낙동정맥인 양산천 수원보호 △수행환경 파괴 중지 등을 한국고속철도공단에 촉구했다. 양산=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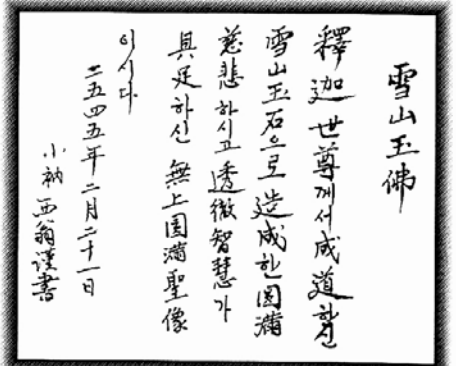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회주시는 본가는 인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주진서



고불승림 방장 지용 큰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